

한국BMS제약, 2017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한국 BMS 제약,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선정
- 지속적인 노사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인정받아

(서울, 2017년 7월 26일) - 한국BMS제약(사장 박혜선)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개최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패) 전수식에 한국BMS제약 박혜선 사장과 박찬권 노조위원장이 참석하여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및 포상하는 제도이다.

한국BMS제약은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탈피하여 노동조합과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노사공동 자율협의 기구'를 운영하고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설문조사 myVoice 가 있다. myVoice 는 직원들의 소속감, 업무 몰입도, 상호 신뢰와 존중 등 조직문화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 노사관계와 일터 혁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매년 진단하고 있다.

진단된 문제점은 노사공동 자율협의 기구인 TM/EE를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고 있다. TM/EE는 직원 주도의 조직문화 개선 테스크포스팀(TFT)으로 매년 전체 직원의 약 35% 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2014년부터 운영된 TM/EE 활동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냈다.

이 밖에도 유연근무제, 자율출퇴근제, 근로자 및 가족 상담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BMS제약 박혜선 사장은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통해 한국BMS제약이 노사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동반 성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BMS제약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BMS제약은 201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고, 2016년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Disclaimer

한국BMS제약은 질환과 의약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며, 본 자료는 특정 제품에 대한 대중 광고나 판촉목적과는 무관합니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 작성 및 게재여부에 대해서는 기자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BMS제약

한국BMS제약은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회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의 한국 자회사로, “혁신적인 의약품을 연구개발, 공급해 환자들이 중증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미션 아래, 암, 바이러스성 간질환, 심혈관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 중증질환에 대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 전념하는 R&D 중심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이다(www.bmsk.co.kr).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ristol-Myers Squibb)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BMS.com, 또는 [LinkedIn](#), [Twitter](#), [YouTube](#) 그리고 [Facebook](#)에서 확인할 수 있다.